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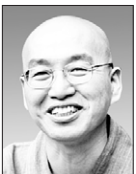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산림대회를 봉행한다. 오전 8시 부산, 울산 차량운행 (055)382-7182



한국자원봉사협 상임대표 취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3월 24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자원봉사협회의 제7대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도갑사 개산추모고유제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4월 3일 국사전에서 개산추모 고유제 추모고유제와 11일 대웅보전 중창낙성식 등을 잇따라 연다. (061)473-5122



양천구청 불심회 죽은죽살 강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3월 25일 양천구청 불심회 초청으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죽은죽살-무엇이든 물어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해동불교임제종 창종 2주년 법회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은 3월 27일 여수 청암사에서 창종 2주년 기념법회 및 노인위안잔치를 봉행했다.



외국인보호소 외국인에 법문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3월 17일 외국인보호소 (소장 석태근)에서 몽골 등 보호외국인 23명에게 한국문화와 불교예절을 가르쳤다.



동국대 불자교수회 김홍사 법회
동국대 불자교수회 이희우 회장(경찰행정학과)은 3월 21일 문경 김홍사에서 3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4월 정기법회는 4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다.



이재형 원장 '성 이야기' 강연
미트라한의원 이재형 원장은 4월 7일 만해교육센터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리더스포럼 '성스러운 성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02)2278-3417

인사

김찬 문화재청 차장 임명

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국장 김찬(행정고시 25회)씨는 3월 25일 문화재청 차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명됐다. 김 차장은 문광부 문화산업진흥담당·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정 부주요정책추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 상한 바 있다.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불교 망한다”

3월 28일부터 75일간 오체투지 순례 시작 수경 스님

“이대론 도태 당한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불교는 망하고 말 것이다.” 3월 28일부터 75일간 진행될 ‘2차 오체투지 순례’를 앞두고 수경 스님은 3월 23일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 개혁을 강조했다. “부끄럽다”는 말로 심정을 밝힌 스님은 “40년 중노릇, 체면치레와 직업으로 해 온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 옛 어른들은 대접받는데 익숙했지만 수행자로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오체투지는 나 자신을 정화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 한국불교계의 모습도 불법을 따르는 모습인지 의문스럽다”며 “외형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수행체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비불교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최근 용산 참사 등 사회현안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중 단 어른, 중진 스님들의 시각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중생의 삶에 뛰어들어 무명을 밝히는 불교로서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최근 젊은이들이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식의 쇠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론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잇따른 정부 지원금 유용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승려들의 비리를 숨기려하지 말고, 밖에서 욕을 먹어도 공론화 과정으로 근본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경 스님이 이끄는 오체투지 순례단은 28일 공주 계룡산 중앙단인 신원사를 출발해 5월 경 서울을 거쳐 인천까지 1000여 km의 여정을 순례할 계획이다. 북한 측은 육로 통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스님은 직항로를 통해서라도 제3국 땅은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새만금 오체투지시 무릎수술



과 시신경 손상 등을 겪었지만 건강을 묻는 기자에게 “머, 안 좋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스님.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한국불교와 우리사회 변화를 발원하는 비장감이 흘렀다. 노덕현 기자

안경환 위원장·강희락 청장 지관 스님 예방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로부터 축소통지를 받은 상태로 이번 예방은 인권강화 및 향후 대안모색에 불교계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사진 위) 9일 취임한 강희락 신임 경희청장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서울 경희사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등 지관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강청장 예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범세계 불자네트워크 구축”

고대불자교우회 김복주 회장

“불교 수행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전국, 범세계 불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려대 학부 출신 불자모임인 고대불자교우회(회장 김복주, 이하 고불회)가 새로운 불교 결사를 다짐했다. 김복주 고대불자교우회 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은 3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20개 대학출신 불자모임 결성을 시작으로 아시아 5개국, 세계 10개국 불자모임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교수행, 친목도모와 더불어 전 세계 불자들이 불교정신을 발휘해 세계평화에 공헌하도록 할 것”이란 비전도 제시했다. 이러한 고불회 발원의 근원은 깊은 신심에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범세계 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에 불법을 전하고 싶다”며 “사찰 중심의 불교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국, 동아시아, 전 세계 대학출신 불자들이 결집을 도모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회는 고려대 학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22

일 창립해 회원 300여 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현재 법회·경전위원회 등을 두고, 수행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상호위원회와 두고 상호 유대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큰스님들을 모시고 조찬법회를 봉행함은 물론 사찰 순례법회를 매일 실시하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고불회는 내달 연세대학교 불자회와 연대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교수불자회, 불교기자협회 등 각종 불교 단체들과 교류를 통해 전국 불자모임 구성,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불회에는 성낙승 금강대 총장, 강봉구 한국석유공업 회장, 이계진 국회의원, 장경작 롯데호텔 대표이사, 이종기 통일개발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 923-0588 이상연 기자



“해외포교 관심 시급”

美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선각 스님

“3억 미국인 중 300만 명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교 영향을 받은 인구는 2500만이지만 사실 한국불교는 왕따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최초 한국 사찰 부다나라(부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3월 2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한국유망장기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비롯한 4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해외포교에 뜻을 전하는 법회였다. 이날 “기적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한 법문에서 선각 스님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지로 한계를 넘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며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자들에게 세계화시대의 필요성과 포교를 통한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법회 후 선각 스님은 “티베트·일본·대만 불교가 대부분인 미국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스

님은 “지금 때를 놓치면 미국, 티베트 불교가 미국을 통해 역수입될 위기”라며 “육바리법, 팔정도, 율회 등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낚아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해외포교에 대한 관심과 불교영어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스님은 “현재 미국에서 성행하는 백인지식인 중심의 불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접근으로 불교 수용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님은 애들란타에도 5천여 평 규모로 전법도량 부다나라를 불사중이다. 스님은 “완공 후 어린이·청소년 캠프, 산사음악회 개최 등으로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상연 기자



태고종 대구교구 법은 스님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대구교구는 3월 2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신임 총무원장 법은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은 스님은 “불교계가 경제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은 스님 대구시장

제7회 연합회 포교사교시 합격자 연수



한국불교육신연합회(회장 인종일)는 불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3월 21-22일 백담사 연세호텔에서 제7회 연합회 포교사교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실시했다. 이상연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헌혈은행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는 3월 26일 조선대 앞 ‘생명나눔의 집 9호’인 이이사람 안경클리닉(대표 배준)에서 헌혈은행 캠페인과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록 홍보를 펼쳤다. 안경환 광주전남지사장

덕운스님의 봄철 대특강 보약짓기 학인 모집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을 내손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덕운스님의 다년간의 비방인 '보약짓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보약짓기'를 배워 내손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신도님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니다.

교육기간 : 2009년 4월 2일, 3일부터 (총 12주)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접 수 : 동양의학방송국 (사전접수요망)

교육시간, 내용, 보시금 :

-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보약짓기 / 보시금(월 50,000)
● 금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전통 사암스님의 학인 침법 / 보시금(월 150,000)
● 금요일 : 오후 2시 - 4시 한약 처방학 / 보시금(월 150,000)

강 사 : 덕운스님(동양의학방송국 대표)
· 박정아교수(세명대학교 외래교수)

문 의 : 02-3487-2311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법장스님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이식결연기관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08년 생명나눔의 날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결연
· 조혈모세포 기증자 등록
· 헌혈은행 사업
·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 장기등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 등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보시행의 실천입니다.

장기기증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FAX) 02-734-8052 www.lisa.or.kr